

2026. 6. 24.(수) 즉시 (온라인 보도) 2026. 6. 24.(수) 16:00

## 대전 대덕소방서 박운동 소방관, 「한국방송공사(KBS) 119상」 대상 수상

- 제31회 한국방송공사(KBS) 119상 시상식 개최, 개인 26명·4개 단체 수상 영예
-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구조·구급대원 21명 본상
- 순직 유공 소방공무원 예우를 위한 ‘소방영웅상’ 2명 신설
- 공로상에 산군법률사무소 이승현 대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정경원
- 봉사상에 (주)현대모비스 안전지킴이, 특별상에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디에스커미티(주)
- 명예상에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서부119구조대 선정

□ 제31회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119상 대상의 영예는 대전 대덕소방서 박운동 소방관이 차지했다.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티브이(TV) 공개홀에서 제31회 「KBS 119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KBS가 주최하고 KBS미디어가 주관하며, 소방청과 디비(DB)손해보험이 후원·협찬하는 「KBS119상」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구조·구급활동을 펼친 소방공무원 및 관련 단체를 선발해 포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 제31회 KBS 119상은 대상 박운동 소방관을 비롯해 본상 21명, 소방영웅상 2명, 공로상 2명, 봉사상 1개 단체, 특별상 2개 단체, 명예상 1

개 단체 등 총 30점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순직유공 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소방영웅상’이 신설됐다.

- 시상식에는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최성민 KBS콘텐츠전략본부장, 박제광 디비(DB)손해보험 부사장, 최용훈 KBS미디어 사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동료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 대상 수상자인 대전 대덕소방서 박운동 소방위는 2002년 1월 임용된 구급대원으로, 각종 응급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헌신해 왔다.
- 박운동 소방위는 2014년 6월 풋살장에서 운동 중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게 체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렸으며, 이러한 공로 등으로 하트세이버 5회를 수상했다. 또한 2016년 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두부 출혈과 다리 골절을 입은 환자를 신속히 처치해 손상 방지에 기여했으며, 브레인세이버 1회를 수상했다.
- 아울러, 2015년부터 한밭사랑봉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쉬는 날 지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봉사를 이어오는 등 현장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 왔다.
- 본상은 구조·구급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소방공무원 21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김원현 소방위 △서울 강동소방서 김민국 소방장 △서울 영등포소방서 김희태 소방장 △부산 해운대소방서 강지훈 소방장 △경기 평택소방서 박춘식 소방장 △경기 용인서부소방서 한초룡 소방장 △대구 수성소방서 황윤구 소방위 △인천

송도소방서 윤화량 소방교 △울산 중부소방서 배정훈 소방장 △강원 춘천소방서 김상철 소방장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정한서 소방위 △충남 공주소방서 김성준 소방장 △전북 전주완산소방서 이용철 소방장 △전남 강진소방서 손도환 소방장 △경북 포항북부소방서 편성은 소방위 △경남 통영소방서 박우상 소방장 △광주 광산소방서 문상우 소방위 △세종 남부소방서 전지훈 소방위 △경기북부 일산소방서 이인우 소방위 △제주 소방안전본부 양우석 소방장 △창원 의창소방서 류용규 소방위 등이다.

- 소방영웅상은 순직 소방공무원인 고(故) 박승원 소방관과 고(故) 노태영 소방관에게 수여됐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소방영웅상을 신설했다.
- 공로상은 산군법률사무소 이승현 대표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정경원이 수상했다.
- 이승현 대표는 제6기와 제7기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방정책 발전에 기여했으며, 119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한 심정지 소생자들의 연대모임인 「희망, 리본 클럽」 결성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소방청 헬기 추락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와 소방공무원 채용, 소방청 행정재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자문 활동을 이어왔다.
- 정경원 센터장은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외상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의료지도를 수행하고, 구급대원 대상 외상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

영하는 등 구급대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봉사상은 (주)현대모비스 안전지킴이 임직원 봉사단에 돌아갔다.

○ (주)현대모비스 안전지킴이는 2024년부터 서초소방서, 종로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 관내 지상식 소화전 도색 봉사활동을 추진해 소방시설의 시인성을 높이고, 지역 안전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 특별상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디에스커미티(주)가 수상했다.

○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군·소방 통합 항공후송체계 구축과 24시간 통합상황 통제, 응급환자 후송 조정 등을 통해 재난·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수준의 통합 응급의료 본보기(모델) 정립에 기여했다.

○ 디에스커미티(주)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5호기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 인명구조를 위해 위험 구조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소방 구조대원의 안전한 진입환경을 마련하는 등 119소방대원과 협업해 구조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명예상은 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서부119구조대가 선정됐다.

○ 서부119구조대는 2025년 국민안전 구조서비스 최강구조대에 선발됐으며, 구조대 인명구조 전문능력 향상과 대원 안전사고 저감 활동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KBS 119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넘어, 명예, 신뢰,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고 더 안전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여가는 한편, 소방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과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119대응국 구조과	책임자	과장 <sup>代</sup> 조태현 (044-205-7611)
		담당자	소방경 이윤선 (044-205-7612)

